

DDR4 역대 최고가… 삼성·SK, 메모리값 상승에 수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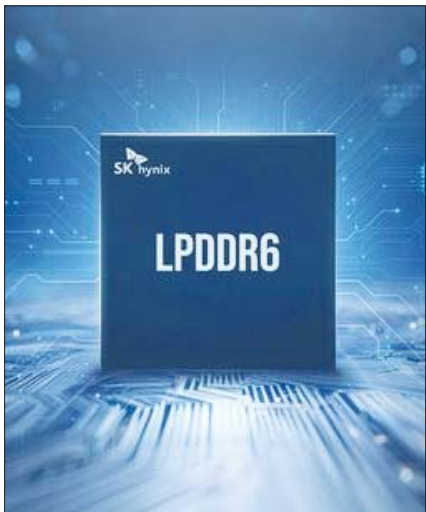
(4세대 D램)

PC용 DDR4 7월 평균 24달러
2016년 집계 이후 최고치 경신
낸드 30달러 돌파 GDDR7 상승
AI 서버 수요에 공급 부족 지속
2027년 D램·HBM 물량 선배정

PC용 범용 더블데이터레이트4(DDR4)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메모리 시장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이어 그래픽 D램과 범용 D램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는 PC용 범용 DDR48Gb의 7월 평균 가격은 24달러로 전월(21달러)보다 14.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관련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6세대 D램 '1c LPDDR6'. /SK하이닉스

도 주요 공급업체와 PC 제조사 간 3분기 DDR4 계약가격이 전 분기보다 15~2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45~50% 급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줄었지만 가격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낸드플래시 가격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메모리카드와 USB용 범용 멀티

레벨셀(MLC) 128Gb의 7월 평균 가격은 30.05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0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초와 같은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공급이 빠듯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래픽드블데이터레이트7(GDDR7)도 가격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최근 대만 경제일보(UDN)는 엔비디아가 GDDR7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반영해 그래픽카드 공급가격을 20~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가격 인상으로, 일부 고급형 제품에 적용됐던 가격 조정이 지포스 제품군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GDDR7은 엔비디아의 최신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탑재되는 차세대 그래픽 메모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요 공급사다.

AI GPU와 고성능 그래픽 시장이 확대되면서 HBM에 집중됐던 메모리 수요가

그래픽 D램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도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그래픽 D램을 차세대 성장 제품군으로 제시하고 GDDR7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만 IT 매체 디지털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은 최근 주요 고객사들과 2027년 D램과 HBM 공급 물량 배분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객사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공급계약(LTA)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AI 서버용 메모리 물량은 대부분 선배정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AI 기업의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PC와 스마트폰용 메모리 공급은 이전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낸드 플래시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샌디스크의 연간 공급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키옥시아와 SK하이닉스도 이달 중 공급 계획을 구체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메모리 가격 강세는 시장 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D램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39%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HBM 판매 확대가 실적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는 26%로 2위를 기록했고, 마이크론은 25%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격차를 1%포인트로 좁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등락에 따라 업황이 좌우됐다면 최근에는 AI 서버를 중심으로 LTA가 확대되면서 공급자 중심 시장으로 채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AI 투자 기조가 이어지는 한 메모리 가격 강세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가전 실적 희비에도 '로봇' 육성 한뜻… 삼성·LG, 피지컬 AI 선점 경쟁

삼성, 완성품·AI 반도체 생태계 구축
구미 생산거점서 휴머노이드 개발

LG, 액추에이터 앞세워 수익화
데이터 팩토리로 모델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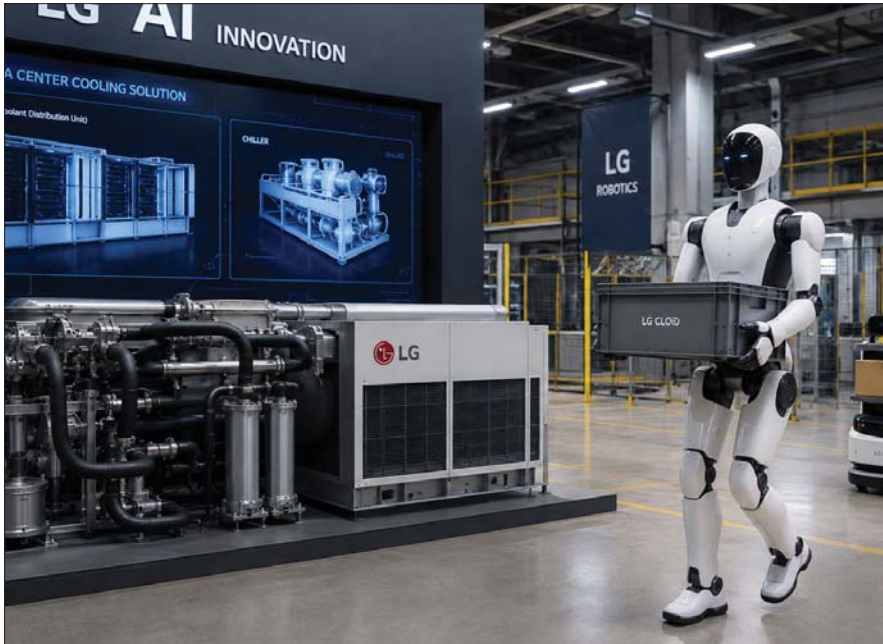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해 2분기 가전 사업 실적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는 나란히 로봇을 낙점했다.

기존 가전사업의 원가 부담과 성장 한계가 커지는 가운데 완성 로봇부터 핵심 부품, 인공지능(AI) 반도체와 데이터 플랫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피지컬 AI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각각 로봇 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가전사업 성적표는 엇갈렸지만 로봇을 미래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방향은 같았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디지털 어플라이언스(DA)사업부는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영업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LG전자가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과 로봇 기술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LG전자는 생활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사업 호조에 힘입어 두 분기 연속 1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렸다.

다만 양사는 실적과 별개로 컨퍼런스콜에서 로봇 사업을 공통된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최고경영자(CEO) 직속 '로보틱스경험(RX)사업추진실'을 신설하며 로봇 조직을 확대했다. 중장기 전략 수립부터 하드웨어와 AI·소프트웨어 개발, 상품기획 기능을 한 조직으로 묶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북 구미에는 로봇 생산 파일럿라인과 데

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제조 현장에서 확보한 작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초기에는 제조·물류 등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공략한 뒤 가정과 서비스 등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로봇용 반도체 시장도 함께 노린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저전력 메모리, 온디바이스 AI용 연산처리장치(XPU), 이미지센서,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연계해 피지컬 AI용 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완성 로봇과 반도체를 함께 키워 AI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도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중심으로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먼저 수익화를 추진하는 분야는 로봇의 관절과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다. 창원공장에 구축한 파일럿 생산라인에서 초도 물량의 양산성과 품질을 검증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국내의 로봇 업체를 대상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수주 규모에 맞춰 양산체제도 구축한다.

완성 로봇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축적에도 힘을 쏟는다. 하반기 가동하는

로보틱스 데이터 팩토리에 휴머노이드 홈 로봇 '클로이'를 투입해 작업 데이터를 확보하고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한다. 엔비디아와는 제조 현장용 로봇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LG AI 연구원의 '엑시원', LG CNS의 소프트웨어, LG이노텍의 비전 센싱과 로봇 핸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등 계열사 역량도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

양사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완성 로봇과 AI 반도체를 함께 육성해 피지컬 AI 생태계 전반을 공략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LG전자는 액추에이터와 데이터 플랫폼을 먼저 사업화한 뒤 완성 로봇으로 영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전업체들이 AI 기능을 제품에 적용하는 단계를 넘어 로봇으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AI 가전이 현재 경쟁력이라면 앞으로는 로봇이 시장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큰 만큼 핵심 부품과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LG유플러스, 보안기업 파고네트웍스 인수… 사이버 대응력 강화

24시간 탐지·분석 MDR 역량 확보
보안 데이터 기반 선제 대응체계 구축

LG유플러스가 전사 차원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보안 서비스 전문기업 파고네트웍스를 인수했다고 4일 밝혔다.

파고네트웍스는 국내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운영형 보안 서비스(MDR)로 보안 역량을 쌓아온 보안 전문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보안 운영 플랫폼 '딥ACT'를 바탕으로 다양한 탐지 툴과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국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7개국에 진출했다.

LG유플러스의 인수 목적은 전사 보안 대응 역량 강화다. 파고네트웍스의 MDR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내부 탐지·분석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보안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MDR은 기업의 보안 환경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탐지·분석해 대응하는 서비스다. 위협 탐지 기능에만 집중된 기존 보안 솔루션과 달리 직접 대응까지 수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안 인력 확보를 줄이고 수준 높은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MDR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 유형이 고도화되면서 MDR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의 보안 시장도 성장세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답마켓 인사이트 조사 결과 전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375조원(2606억 달러)에서 2034년 약 1322조원(916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국내 사이버 보안 시장은 약 4조1600억원에서 약 14조2600억원으로 연평균 14.7% 성장이 전망된다.

기업 고객에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 경

쟁력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앞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유플러스 프리미엄 보안 관제와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통합 인증 서비스 알파키 등을 제공해 솔루션 사업을 진행해왔다. 여기에 MDR 역량을 더하면 통합적인 보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흥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보안·품질·안전을 기본축으로 제시하며 고객 신뢰 기반의 성장을 강조해왔다. 이번 인수는 LG유플러스가 추진 중인 보안 중심 성장 전략과 관련한 첫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 본사 전경.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향후 인증·네트워크 관제·위협 대응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보안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현진 기자 msp09

